

7

명작의 탄생지, 명작을 만든 예술가들



【7장을 열며】

대구에선 음악, 문학, 미술 등의 예술 장르에서 여러 명작이 탄생하였다. 또 대구에서 태어나거나 활동한 많은 사람이 예술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우리 지역이 낳은 명작과 예술가들의 삶을 통해서, 위대한 예술작품의 가치와 의미를 생각해 보자.

1. 대구에서 탄생한 아름다운 노래와 그림
2. 한국 문학사에 큰 발자취를 남긴 작가들
3. 경북이 배출한 유명 문학가들

1

대구에서 탄생한 아름다운 노래와 그림

【이 단원에서 우리가 배울 것은?】

한국인의 애창 가곡 <동무 생각>을 작곡한 박태준, 한국 미술을 빛낸 천재화가 이인성 등 음악, 미술 분야를 빛낸 대구의 예술가들과 그들의 작품 세계를 알아보자.



청라언덕

한국 최초의 가곡
<동무 생각>이 탄생한
청라언덕

1922년 경상남도 마산에 있는 창신중학교에는 대구 출신의 음악 교사 박태준(1900~1986)이 근무하고 있었다. 그는 어느 날 동료 교사인 이은상에게 대구 계성학교에 다니던 청소년 시절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학교 근처에 있는 청라언덕 이야기부터 학창 시절 자신이 짝사랑했던 여학생 이야기까지.

“박 선생은 지금도 그 시절을 그리워하시는 것 같네요.”

이야기를 듣던 이은상의 말에 박태준은 이렇게 대답했다.

“그럼요. 대구가 그림고, 나 홀로 좋아했던 그 여학생이 생각나기도 하고...”

노래 하나가 탄생하던 순간이었다. 빼어난 문학가이기도 했던 이은상은 자신이 들은 이야기를 모티브 삼아 노랫말을 지었다. 여기에 박태준이 곡을 붙여 탄생한 가곡이 바로 <동무 생각>이다. 그중 1절의 가사를 읊미해 보자.

봄의 교향악이 울려 퍼지는
청라언덕 위에 백합 필 적에
나는 흰나리꽃 향내 맡으며
너를 위해 노래, 노래 부른다
청라언덕과 같은 내 맘에
백합 같은 내 동무야
네가 내게서 피어날 적에
모든 슬픔이 사라진다



20세기 초부터 음악의 도시였던 대구

대구는 서울 못지않게 서양음악을 빨리 받아들인 도시였다. 서양음악의 전달자는 천주교 신부와 개신교 선교사들이었다. 이들이 대구에 세운 학교에선 1900년 무렵부터 서양음악 수업이 시작되었다. 1910년대가 되자 개인 음악활동을 하는 예술가들이 나타났다. 이 시대에 활동한 대구의 음악가에는 박태원(1897~1921), 김문보(1900~?), 권태호(1903~1972) 등이 있다. 박태준의 형인 박태원은 대구에 서양음악을 보급하는 선구자 역할을 했는데, 대구 최초로 혼성합창 발표회를 가지기도 했다. 김문보는 한국 최초의 바리톤 성악가였고, 대구에서 처음으로 독창회를 연 성악가 권태호는 대구음악원을 만들어 많은 제자를 배출했다. 또 현대에 들어선 가곡 〈노래의 날개 위에〉 등을 작곡한 김진균(1925~1986), 가곡 〈못 잊어〉 등을 작곡한 하대웅(1914~1983)을 비롯해 많은 음악인들이 대구 음악 발전에 큰 공헌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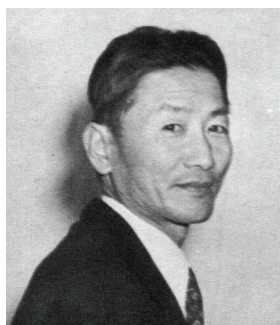


청라언덕에 있는 <동무 생각> 노래비

청라언덕은 박태준이 다녔던 계성학교 건너편에 있는 언덕 이름으로, '청라'는 푸른 담쟁이를 의미한다. 학창 시절 박태준은 청라언덕으로 난 길을 따라 등교했는데 백합같은 한 여학생을 마주치곤 했던 곳이 그 언덕길이었다. 이렇게 탄생한 가곡 <동무 생각>은 한국음악사 최초의 가곡으로 알려져 있다.

대구가 낳은 음악가 박태준은 숭실전문학교를 졸업한 후 마산 창신학교와 모교인 대구 계성학교에서 교편을 잡으며 많은 가곡과 동요를 작곡했다. '뚝뚝 뚝뚝 뚝뚝새'로 시작하는 국민 동요 <오빠 생각>도 그의 작품이다.

그 후 박태준은 미국에서 합창 지휘를 공부한 후 돌아와 숭실전문학교 교수로 재직하며 국내의 합창음악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 대구에서 1938년 창단한 지역 최초의 일반 합창단(대구합창협회)을 지휘한 인물도 그였다. 현재 청라언덕에는 청소년 시절의 순수한 그리움을 아름답게 표현한 <동무 생각> 노래비가 서 있다.



박태준



일본 유학 시절의 이인성

미술의 도시 대구 이인성을 낳다



대구 지식플러스

**1917년,
대구 최초의
서양 미술 화법 출현!**

우리나라에 최초로 서양 미술 화법이 도입된 것은 1915년 일본 유학을 마치고 서울로 돌아온 고희동이라는 화가를 통해서였다. 그로부터 2년 후인 1917년 대구 출신의 이상정(시인 이상화의 형)이 일본 유학에서 돌아와 대구에 서양 미술 화법을 전파한다. 그 후 이인성을 비롯해 서동진, 박명조, 이쾌대, 정점식 등 훌륭한 화가들이 대구의 미술을 빛냈다.

1912년 대구 남성로에서 태어난 이인성(1912~1950)은 어린 시절부터 그림에 재능을 보였다. 하지만 어려운 형편 탓에 보통학교를 마친 후 상급학교 진학 대신 화가 서동진이 경영하는 대구미술사에 들어가 수채화를 배웠다. 17세 때 소과 방정환이 주최한 세계아동미술전람회에서 〈춘락의 풍경〉으로 특선을 차지하며 천재 소년으로 불리게 된다. 이듬해에는 당시 최고의 경연대회인 조선미술전람회에 입선하며 명성을 굳혔고, 지역 화가들의 모임인 '향토회'에 가입하여 활발한 작품 활동을 펼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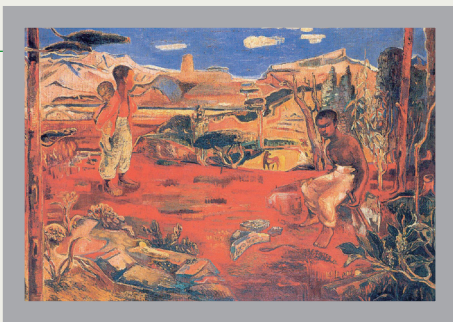
그의 재능을 아끼는 이들의 도움으로 이인성은 일본 유학의 길에 오르게 되었고, 이후 조선과 일본에서 명성을 떨치는 화가로 성장하여 〈경주의 산곡에서〉, 〈가을 어느 날〉, 〈해당화〉 같은 향토색 짙은 명작을 발표했다. 어떤 미술평론가는 그를 '조선의 보물과 같은 화가'라고 평가하였다.

유럽의 회화 사조인 인상파·야수파 등의 영향을 받은 그는 수채화와 유화 분야에서 자신만의 개성 있고 과감한 표현법으로 명작을 남겼을 뿐 아니라 이인성양화연구소를 설립해 후진 양성에도 힘쓰는 등 대구의 서양화 보급과 발전에도 큰 공을 남겼다.

안타깝게도 1950년 한국전쟁 시기에 총기 오발 사고로 일찍 세상을 떠났지만, 그가 남긴 그림은 여전히 눈부시다. 이인성을 기념하여 매년 대구에선 독자적인 작품 세계를 선보인 1명의 화가를 선정하여 이인성미술상을 시상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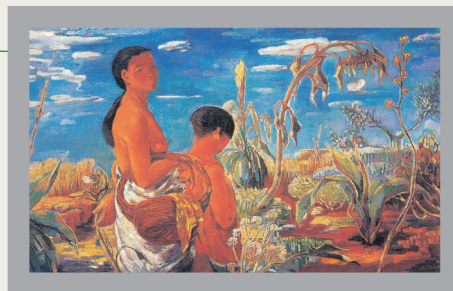
이인성 대표작 감상하기

2019년 11월~2020년 1월 대구미술관에서는 '화가의 고향, 대구'라는 타이틀로 '이인성 특별전'이 열렸다. 약 20점의 작품을 선보인 이 전시회에서는 <계산동 성당>과 <팔공산> 등 전시 주제와 어울리는 작품들도 여럿 감상할 수 있었다. 현재 국내 유명 미술관 등에서 소장하고 있는 작품 가운데 대표작 몇 점을 소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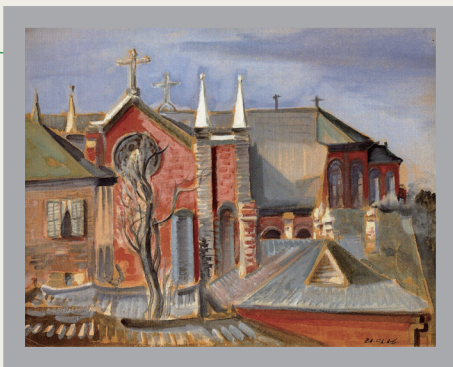
**<경주의 산곡에서> 1934년,
캔버스에 수채, 71×89.5cm**

제14회 조선미술전람회에서 최고상을 받은 작품이다. 향토의 붉은색과 파란 하늘의 강렬한 대비, 기와 파편과 첨성대 등 옛 신라의 수도를 상징하는 소재들이 어우러져 식민지의 암울한 현실을 상징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가을 어느 날> 1934년,
캔버스에 유채, 96×161.4cm**

흔히 고갱의 그림과 대비되는 작품이다. 파란 가을 하늘과 들판 가득한 식물들 가운데 시든 해바라기, 그리고 바구니를 든 여인과 뒷모습의 소녀가 주는 색의 대비가 쓸쓸하면서도 찬란하다. 거칠고 강한 묘사에서 향토색이 느껴진다.



**<계산동 성당> 1930년경,
종이에 수채, 35.5×45cm**

오후의 햇빛 속에서 서 있는 계산성당의 풍경을 불투명 수채 물감으로 표현했다. 붉고 푸른색이 강조된 가운데 하얀 첨탑이 뚜렷한 대비 효과를 보여 준다. 그림에 등장하는 감나무는 이 그림 때문에 유명해져서 '이인성나무'라고 불린다. 계산성당에 가면 그림 속의 나무를 실제로 볼 수 있다.



**<사과나무> 1942년,
캔버스에 유채, 91×116.5cm**

일제강점기에 대구는 사과의 고창으로서 전국적 명성을 누리고 있었다. 이인성이 계산성당과 더불어 고향인 대구를 소재로 하여 그린 빼어난 작품이다. 원래 명덕초등학교에 기증되었던 작품으로 현재는 대구미술관에 기탁되어 관리하고 있다. 과거 사과밭이 많았던 산격동에 이인성사과나무거리가 조성되어 있고 이인성의 작품들이 벽화로 그려져 있다.



향촌문화관 내의 음악감상실 녹향

한국 최초의 음악감상실
'녹향'을 아시나요?



녹향, 이중섭의 그림과 가곡 〈명태〉의 산실

한국전쟁 기간에 많은 예술가들이 녹향을 찾았다. 단순한 음악감상실이 아닌 일종의 예술 창작 공간이었던 셈이다. 한국미술사에서 가장 유명한 화가 이중섭의 은박지 그림이 탄생한 곳도 여기였다. 가난 때문에 종이 대신 담뱃갑 은박지에 그림을 그렸던 것이다. 그의 은박지 그림은 가난 앞에서 포기하지 않는 예술가 정신의 상징이 되었다. 녹향의 또 다른 단골손님으로 시인 양명문이 있었다. 그가 지은 시 「명태」에 작곡가 변훈이 곡을 붙여 탄생한 〈명태〉는 유명한 가곡이 되었다. 노래가 완성된 후 양명문 시인은 “이 가곡을 이창수 님에게 바칩니다.”라면서 고마운 마음을 전하였다.

음악의 도시 대구엔 음악을 사랑하는 시민들이 많았다. 대구에 대한민국 최초의 고전음악감상실이 생긴 이유이기도 하다. 1946년에 문을 연 '녹향'은 이창수라는 음악애호가인 향촌동 자택의 지하실에 마련한 공간이었다. 축음기와 함께 보유한 클래식 음반의 수는 500여 장.

1950년 한국전쟁이 일어나고 많은 예술가들이 대구로 몰려들자 녹향은 대한민국 예술가들의 사랑방이 되었다. 음악 감상 외에 시 낭독회, 출판 기념회 같은 문화행사도 자주 열렸다.

1958년 녹향은 향촌동에서 남일동으로 이전했다. 시간이 흘러 고전음악감상실이 늘어나고 서양 팝송의 인기가 치솟자 녹향은 점점 설 자리를 잃고, 경영난으로 이사만 10여 차례나 했음에도 꾸준히 영업을 이어갔다. 2011년 이창수 사장이 작고한 뒤에도 계속 명맥을 유지하던 녹향은 2014년 들어 마침내 폐업을 고려할 지경에 이르렀다.

이때 대구의 문화예술인과 시민이 뜻을 모아 '녹향 살리기 운동'을 벌였는데, 여기에 감동한 이창수의 유족이 녹향의 자산인 2000여 장의 음반과 축음기 등을 대구시 중구에 기증했다. 덕분에 중구 향촌문화관 지하 1층에서 옛 모습 그대로 재현한 녹향을 다시 만날 수 있게 되었다.

2

한국 문학사에 큰 발자취를 남긴 작가들

【이 단원에서 우리가 배울 것은?】

대구는 20세기 초부터 한국의 시, 소설에 큰 발자취를 남긴 문학가들을 많이 배출한 고장이다. 시인 이상화, 소설가 현진건 등이 남긴 작품과 그들의 인생 이야기를 듣는다.



대구
지식플러스

일제강점기
대구 문학청년들이 만든
시집 「거화」

일제강점기 대구에서 문학 활동을 함께 했던 이상화, 현진건, 백기만 그리고 이상백(이상화의 동생) 네 사람은 1917년 그들이 쓴 시를 모은 시동인지 「거화(炬火)」를 펴냈다. 거화는 횃불을 뜻한다. 이 네 사람 중 이상화, 현진건, 백기만은 한국의 문학사에 큰 발자취를 남겼다. 또 이상백은 광복 이후 서울대 교수를 지내며 사회학 보급과 한국 체육 발전에 큰 업적을 남겼다.



달성공원에 있는 이상화 시비

이상화, 대구의 들판에서
위대한 시 작품을 낳다!

일제강점기 때 오늘날 수성구와 남구 대명동 지역 대부분은 논과 밭으로 이루어진 들판이었다. 대구에서 태어난 시인 이상화(1901~1943)에게 이 들판은 친근한 곳이었다. 감수성과 상상력이 뛰어났던 그는 이곳을 거닐며 하나의 시상을 떠올렸고, 1926년 잡지 『개벽』에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를 발표한다.

“지금은 남의 땅 —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로 시작하는 시는 일본에게 나라를 잃은 현실을 ‘빼앗긴 들’에 비유하며, 이곳에 서 있는 민족에게 해방을 가져다 줄 ‘봄’을 간절히 기다리는 마음을 드러내고 있다. 일제강점기를 살아가는 많은 이들에게 슬픔과 희망을 동시에 안겨준 이 시는 해방 후에도 한국인이 사랑하는 시이자 대구 시민의 자랑이 되었다.

이상화는 일곱 살 때 아버지를 여의고 큰아버지의 손에서 자랐다. 교육자였던 큰아버지 이일우는 조선 청년에게 민족의식과 독립정신을 일깨워 준 우현서루를 운영한 인물이었다. 그런 가풍 밑에서 성장한 이상화의 삶이 다를 리 없었다. 1919년 3·1 운동 당시에는 대구에서 만세운동을 준비하다 적발돼 서울로 피신하는 등 평생 일본의 지배에 저항하는 삶을 살았다. 오늘날 우리가 이상화를 ‘민족시인’으로 기리는 이유가 이것이다.



1917년 대구의 문학청년들. 백기만(앞줄 좌),
현진건(앞줄 우), 이상화(뒷줄 우)



사실주의 문학을 개척한
대구 출신 소설가 현진건

1921년 1월 대구 출신의 젊은 소설가 현진건(1900~1943)은 『개벽』이라는 잡지에 단편소설 「빈처」를 발표했다. '빈처'는 가난한 아내라는 뜻이다. 이 소설에 등장하는 아내가 가난한 것은 다른 직업은 거들떠보지 않고 소설 쓰기에만 열중하는 남편 때문이다.

소설의 첫 대목에서 소설가의 아내는 “그것이 어찌 없을까?”라고 중얼거리며 옷장 문을 열어 저고리를 찾는다. 그것을 전당포에 잡혀서 아침거리를 장만하기 위해서이다. 형편이 그리 안 좋아도 그녀는 남편을 원망하지 않는다. 결말 부분에서 남편이 “나도 어서 출세를 하여 비단신 한 켤레쯤은 사 주게 되었으면 좋으련만…” 하고 말할 때에도 그녀는 “얼마 안 되어 그렇게 될 것이야요!”라며 격려할 뿐이다.

한국문학사에서 사실주의 소설의 선구적인 작품으로 불리는 「빈처」는 발표 당시까지 무명 소설가였던 작가 자신을 모델로 한 것이다. 이 소설을 발표한 후 현진건은 한국을 대표하는 소설가로 성장하게 된다. 이후로도 그는 「운수 좋은 날」, 「B사감과 러브레터」 등의 단편소설과 장편 『무영탑』 등을 쓰며 조선을 대표하는 작가의 반열에 올랐다.

「빈처」를 발표할 당시 그는 조선일보사 기자이면서 소설을 쓰고 있었다. 그 후 1927년부터는 『동아일보』 사회부 기자로 일했는데, 1936년 베를린올림픽에서 마라톤 금메달을 딴 손기정 선수의 사진에서 일장기를 삭제한 일로 체포되어 1년간 감옥살이를 하기도 했다.

기자를 그만두고 현진건은 본격적인 작가의 길을 가기로 마음먹는다. 당시 조선의 작가들 가운데에는 일본에 우호적인 작품을 쓰지 않으면 생계를 잇기가 힘들어 친일문학가로 변절한 사람들이 꽤 있었다. 그러나 현진건은 가난할망정 일본에 굴복하지 않았



두류공원 인물동산에 있는 현진건 문학비



대구에 가득한 문예반 활동의 추억!

근대를 지나 현대에 들어서도 대구는 많은 문학가를 배출하였다. 대구 출신의 문학가들 상당수는 학창 시절에 문예반에서 활동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1960년대부터 대구는 고등학교의 문예반 활동이 매우 활발한 도시였다. 각 학교 문예반은 저마다의 이름을 가지고 있었는데, '태동기'(대건고), '계단'(대구고), '씨알'(대륜고), '알람'(정화여고), '코스모스'(제일여상), '햇살'(경북여고), '돌탑'(경북고), '울림'(효성여고) 등을 떠올릴 수 있다. 이 문예반 학생들은 연 1~2회 시화전, 문학의 밤 같은 행사를 개최하였으며, 백일장에서 각자의 솜씨를 뽐냈다. 문예반 활동으로 실력을 키운 대구의 학생 중 아주 많은 사람이 훗날 소설가, 시인으로 등단하게 된다.

다. 형편이 힘들어지자 작품 활동 틈틈이 생계 유지를 위해 집에서 닭을 치면서도 끝내 지조를 꺾지 않았다. 이처럼 참된 예술가의 삶을 살았던 현진건이었지만, 아쉽게도 조선의 해방을 보지 못하고 1943년 세상을 떠났다.

이상화와 현진건 외에도 근대에 활동한 대구 출신 유명 문학가는 여럿이다. 글로 사귄 벗을 문우라고 하는데, 현진건과 이상화는 비슷한 또래인 이장희, 백기만과도 문우 사이였다.

천재적 재능을 지닌 시인 이장희(1900~1929)는 1924년 발표한 「봄은 고양이로다」로 유명하다. 어느 봄날에 고양이를 관찰하며 쓴 “꽃가루와 같이 부드러운 고양이의 털에 고운 봄의 향기가 어리우도다”로 시작하는 이 시는 지금도 많은 사람이 애송하고 있다.

시인 백기만(1902~1967)은 3·1 운동 때 이상화와 더불어 독립운동을 모의했던 문학가였다. 그는 1951년 생전에 시집을 발간하지 못하고 죽은 친구인 이상화, 이장희를 추모하며 두 사람의 시를 모아 시집을 펴낸 바 있다. 또 이상화가 죽은 뒤에는 대구 달성공원에 우리나라 최초의 시비인 이상화 시비를 세우는 데 앞장서기도 했다.



『마당 깊은 집』을 쓴 작가 김원일

대구 거리를 유명하게 만든
김원일의 『마당 깊은 집』



대구가 배경인 소설로는 또 무엇이 있을까?

대구시 북구 칠곡에는 이곳 출신의 소설가 이태원(1942~2008)을 기념하는 이태원길과 이태원문학관이 있다. 이태원은 칠곡을 배경으로 그의 대표작인 장편소설 『객사』를 썼다. ‘객사’는 조선시대에 각 고을에서 손님을 대접하고 숙소로도 사용한 집을 말한다. 대구를 배경으로 한 최근 작품에는 2012년 출간된 소설가 조두진(1967~)의 『북성로의 밤』이 있다. 1940년대 북성로에 있었던 ‘미나카이백화점’을 배경으로 하는 작품으로, 당시 대구의 모습이 자세히 묘사되어 있다.

소설가 김원일(1942~)은 한국전쟁 전후의 시기를 다룬 빼어난 소설을 여럿 썼다. 그중 하나가 1988년에 발표한, 대구를 배경으로 하는 장편소설인 『마당 깊은 집』이다. 1942년 경남 김해에서 태어난 김원일은 소년 시절에 대구로 이사 와 대구시 중구 장관동에 있는 마당 깊은 집에서 살았다. 실제로 소설의 중심 공간이 된 곳이다.

출간 후 베스트셀러가 된 이 소설은 몇 년 뒤에는 드라마로도 만들어졌다. 그 덕에 소설의 배경인 대구의 거리, 대구의 역사가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김원일은 『마당 깊은 집』 발표 후에도 『마음의 감옥』 등 훌륭한 작품을 많이 발표하여 한국을 대표하는 소설가가 되었다.

『마당 깊은 집』은 한국전쟁이 끝난 직후 이 집에 모여 살게 된 여섯 가구, 22명의 인물들에 얽힌 사건들을 소년 길남의 시점에서 서술하고 있는 소설이다. 아버지 없이 어머니 밑에서 누나, 두 명의 동생과 함께 살고 있는 길남은 돈을 벌기 위해 신문팔이에 나선다. 또 한 명의 주요 인물인 길남의 어머니는 샅바느질을 하며 아이 넷을 키우느라 헌신하는 여성이다.

소설에는 대구의 여러 거리와 시장이 등장한다. 소설을 읽다 보면 1954년 대구의 풍경이 눈앞에 절로 그려진다. 대구 도심의 교동시장과 종로거리는 물론, 진골목(마당 깊은 집이 있던 골목)의 모습도 눈에 잡힐 듯 생생하다. 현재 종로거리에는 신문팔이에 나선 길남이가 벤치에 우두커니 앉아 있는 모습을 묘사한 조각품 등이 있다. 계산성당 근처에는 이 소설을 기념하는 공간인 마당깊은집문학관도 있다.

아래에서 대구·경북이 ‘지방’과 ‘변방’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생각해 보고,
이 지역에서 계속 이어 가야 할 문화를 함께 생각해 봅시다.

지방: 일정한 범위의 지역을 말하지만 서울 이외의 지역을 통칭하기도 함.

변방: 적과 대치하고 있는 국경, 또는 중심지에서 멀리 떨어진 변두리 지역을 지칭.

* 서울 중심의 사고를 가진 사람들은 ‘지방’과 ‘변방’이 같은 의미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음.

* ‘변방’은 중심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 중심지의 문화가 파급되는 시간이 늦는 곳을 의미. 그러나 ‘지방’에선 역사적으로 형성되어 온 나름의 문화가 있으며, 중심지 문화와 경쟁이 이뤄지기도 함.

대구·경북 지역은 오랜 역사 속에서 서울 지역과 경쟁할 수 있는 독특한 문화를 발전시켜 왔다는 점에서 ‘변방’이 아니라 ‘지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선비들의 고장으로 마을 단위의 공동체를 중시하던 전통은 ‘사방 백 리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라’는 경주 최 부잣집의 정신을 낳았죠.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땐 남녀노소 없이 나선 호국의 고장이었고요.

또, 뿌리 깊은 선비의 고장답게 시, 서예, 그림을 중시하던 예술적 기풍도 강했습니다. 조선시대에 수많은 문인을 배출한 것은 물론 현대에 와서도 이상화, 이장희, 현진건, 김춘수, 이중섭, 이인성, 박태준 등 유명 예술가들의 활동 근거지가 돼 주었어요. 지금도 활동 중인 유명 시인 정호승, 안도현 등이 대구 지역 고등학교 문예반 출신이라는 사실, 알고 있었나요? 예술과 교양 분야를 넘어, 대구·경북은 종종 대한민국의 생활과 의식 문화를 선도하는 역할도 수행했습니다. 경북에서 시작된 새마을운동이 대표적인 사례의 하나인데요. 전국에 퍼진 이 운동이 한국인의 생활에 미친 영향은 너무나 컸죠. 한편, 교육 수도를 표방한 대구는 지역의 전통을 잘 살린 인문 교육이나 책 쓰기 운동을 통해 교육 혁신을 불러일으킨 바도 있습니다.



마당깊은집문학관

소설 『마당 깊은 집』의 실제 무대였던 대구 중구에 자리하고 있다. 소설 배경과 등장인물 관련 자료를 입체적으로 전시해 놓은 곳으로, 마당 깊은 집 모형, 등장인물 소개, 대구의 풍경과 생활상을 보여주는 사진, 김원일 작가의 기증 도서들을 전시한 공간 등이 마련되어 있다. 1950년대 대구의 모습을 담은 사진도 볼 수 있다.

대구문학관

향촌문화관 건물 3, 4층에는 대구문학관이 있다. 3층 전시장은 '대구, 명작의 분향', '작가와와 동행' 등 대구의 문학과 관계 있는 전시실을 다양하게 갖추고 있다. 4층엔 '대구문학을 체험하다'라는 주제로 작가들의 책을 볼 수 있는 '문학 서재', '기획전시실' 등이 있다. 전시회도 종종 열리는데, 2020년 1월에는 시인 이상화와 이장희를 기념하는 전시회가 열렸다.

계산성당 감나무 & 대구미술관

계산성당에는 수령이 100년 넘는, '이인성나무'라는 별명을 지닌 감나무가 있다. 천재화가 이인성이 1930년대에 그린 <계산동 성당>에 등장하는 나무이기 때문이다. 대구시 수성구 삼덕동에 있는 대구미술관은 대구를 대표하는 예술 전시관으로, 이인성의 작품 5점 외에 많은 작품을 소장하고 있다.

3

경북이 배출한 유명 문학가들

【이 단원에서 우리가 배울 것은?】

조선시대부터 훌륭한 선비를 많이 배출해 온 경상북도의 전통은 현대로 와 훌륭한 문학가들을 다수 배출한 배경이 되었다. 경북 출신의 대표적인 문학가 6인과 그들의 작품을 살펴보자.



안동 이육사문학관

안동이 낳은 문학가,
이육사와 권정생



이육사

독립운동가 시인 이육사

시인 이육사(1904~1944)의 작품 중에서는 「청포도」가 특히 유명하다. “내 고장 칠월은/ 청포도가 익어가는 시절”이라는 구절로 시작해 “아이야 우리 식탁엔 은쟁반에/ 하얀 모시 수건을 마련해 두렴”으로 끝이 난다. 청포도를 제재로 풍요롭고 평화로운 미래를 노래했다고 해석되는 시이다.

1904년 안동에서 태어난 이육사의 본명은 이원록이었다. 크면서 고향에서 한학을 익히고, 영천에 있던 백학서원과 대구의 교남학교에서 신학문을 배웠다. 이후 몇 년간은 대구에서 신문사 기자로 근무하며 작품을 발표해 나간다.

이육사는 시인이면서 평생을 독립운동에 몸 바친 투사이기도 했다. 그는 1927년 독립운동가 장진홍이 벌인 조선은행 대구지점 폭탄투척사건에 연루되어 대구형무소에서 최초의 감옥살이를 하게 되는데, 이육사라는 이름은 이때의 수인번호 ‘264’에서 온 것이다. 이때부터 그는 항일운동으로 1944년 감옥에서 순국할 때까지 무려 17번이나 감옥을 드나들었다.

항일 투쟁에 평생을 바친 탓에 이육사가 남긴 시 작품은 그리 많지 않다. 그러나 「청포도」를 비롯해 「광야」, 「절정」과 같은 시들은 일제강점기 때 탄생한 시 가운데 매우 뛰어난 작품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육사 탄생 100주년이 되던 2004년 이육사문학관이 시인의 고향에서 문을 열었으며, 이 외에도 안동에선 해마다 이육사시문학상 시상식, 전국육사백일장 등 그를 기념하는 행사가 열리고 있다.



작가 권정생과 그가 쓴 동화『강아지똥』

아름다운 동화들을 선물하고 간 권정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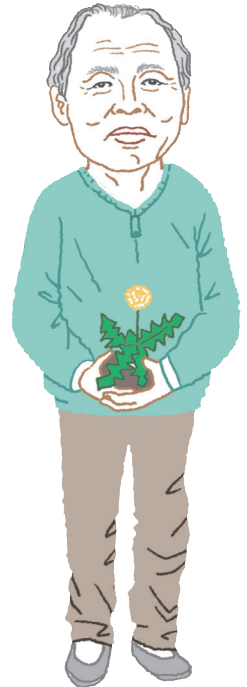


1969년 『강아지똥』이라는 독특한 제목의 동화가 세상에 나왔다. 안동에 사는 권정생(1937~2007)이라는 무명작가의 작품이었다. 누구에게나 무시받던 강아지똥이 어느 날 발견한 민들레꽃에게서 자신이 그 예쁜 노란 꽃을 피우게 할 거름이 될 수 있음을 깨닫는다는 이야기다. 이 작품이 많은 이들을 감동시킨 건 세상에 하찮은 건 없으며, 저마다 가치가 있다는 주제를 쉽고 꾸밈없는 글로 표현했기 때문이었다.

권정생은 1937년 일본 도쿄의 빈민가에서 가난한 조선인 노동자의 아들로 태어났다. 광복이 되고 1946년 외가가 있는 경북 청송으로 돌아왔지만, 얼마 안 가 터진 한국전쟁과 가난으로 가족과 헤어져 대구 등 여러 도시를 전전하며 나무장수, 가게 점원 등을 하며 살았다. 가난과 고생 탓에 얻은 병 속에서 그를 지켜준 힘은 기독교 신앙과 독서, 글쓰기였다.

『강아지똥』의 성공과 함께 권정생의 이름도 널리 알려졌다. 그러나 흠집에 살면서 교회 중지기로, 동화작가로 사는 삶은 바뀌지 않았다. 작품의 성공은 계속되어 1984년 발표한 『몽실언니』가 다시 베스트셀러를 기록하며 드라마화되는 인기를 얻었다.

권정생은 자신의 작품에서 나오는 수익으로 어린이를 위한 단체를 만들어 달라는 유언을 남겼다. 그가 죽은 후 권정생어린이문화재단이 설립되어 어린이를 위한 여러 사업을 하고 있다.





경주 동리목월문학관 전시실

**김동리와 박목월
경주 출신의 대가 2인**



김동리

어느 방면에서 매우 뛰어난 사람을 대가 또는 거장이라고 부른다. 신라의 수도였던 경주에선 20세기에 한국의 소설과 시 분야에서 뛰어난 거장 두 사람이 나왔다. 소설가 김동리와 시인 박목월이 그들이다.

김동리(1913~1995)는 초등학교 시절부터 글쓰기에 재능을 보였다. 훗날 《조선일보》 신춘문예에 당선(1934)되며 문학가로 등단한 그는 1947년 첫 소설집 『무녀도』를 발표하며 일약 한국 문단의 아이콘으로 떠올랐다. 단편 소설 『무녀도』, 『황토기』, 장편소설 『사반의 십자가』 등이 대표작으로 꼽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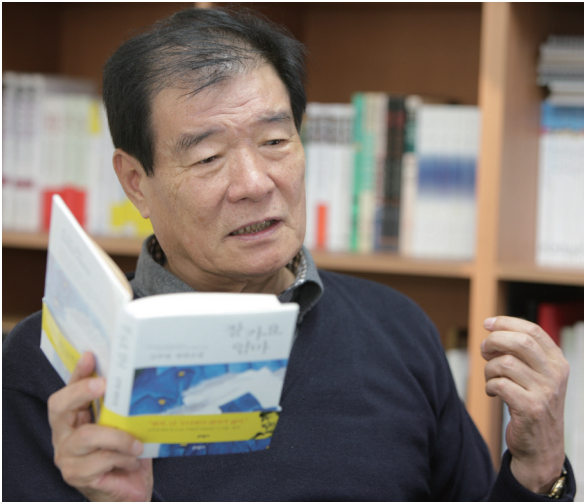
그의 업적 중엔 빼어난 작가들을 많이 발굴하고 양성한 것도 있다. 서라벌예술대학 교수와 『월간문학』이란 잡지를 발행하면서 많은 신인 작가들을 양성, 발굴하였고 그들 중 많은 사람이 한국 문학을 빛내는 작가가 되었다.



박목월

1916년 경주에서 태어난 박목월(1916~1978)은 1939년 시인으로 데뷔했으며, 1946년 조지훈, 박두진과 함께 펴낸 『청록집』으로 유명해졌다. 자연을 소재로 한 이 아름다운 서정시들의 묶음은 평론가들로 하여금 세 사람을 ‘청록파’로 부르게 했다. 시집에 실린 박목월의 작품 중에는 「나그네」가 특히 유명하다.

박목월은 아름다운 동시와 수필도 많이 썼다. 그 역시 대학 교수로 재직하며 많은 제자를 길러내 한국 문학 발전에 이바지하였다.



김주영



이문열

한국을 대표하는 베스트셀러 작가들

김주영(1939~)과 이문열(1948~)은 오늘날 한국을 대표하는 소설가이다. 베스트셀러 작가라는 공통점을 가진 두 사람은, 직장생활을 하며 소설가의 꿈을 이뤘다는 점에서도 공통점이 있다.

청송에서 태어난 김주영은 10년 가까이 직장생활을 하다가 1971년 소설가로 정식 데뷔했다. 이후 왕성한 작품 활동을 하였는데, 『천둥소리』를 비롯해 『객주』, 『화척』, 『홍어』 등이 유명하다. 대하소설 『객주』는 조선 말기 보부상을 주인공으로 내세움으로써 왕이나 저명한 인물들 중심이던 역사소설에 새바람을 불어 넣은 것으로 평가받는다.

한국 현대문학사에서 명실상부한 최고의 베스트셀러 작가 이문열은 서울 출생이지만, 원래 그의 집안이 대대로 살아온 곳은 경상북도 영양군의 두들마을이었다. 그는 유년기를 고향에서 보냈다. 젊은 시절에는 신문 기자 생활을 하며 소설가의 꿈을 키워 나갔다. 1980년대부터 한국을 대표하는 소설가가 된 그는 『사람의 아들』을 비롯해 『황제를 위하여』, 『우리 기쁜 젊은 날』,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있다』 등의 히트작을 발표했다.

두 작가에게는 어린 시절을 경북 북부 지방에서 보냈다는 공통점이 있다. 작가의 작품에 종종 이 지역이 무대로 등장하기도 한다. 재능과 성실함을 두루 갖춘 김주영과 이문열의 성공은 이들을 배출한 지역의 커다란 자랑거리이다. 오늘날 청송군에는 김주영을 기념하기 위한 객주문학관이 있으며, 영양군 두들마을에는 한국 현대문학 연구와 문학도 양성을 위해 설립된 광산문학연구소가 있다.